

속 기록

- 회 의 명 : 제295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1. 1. 29(금) 14:00 ~ 17:48
- 장 소 : 영상회의
- 출석위원 : 박종관 위 원 장
 강윤주 위 원
 박경주 위 원
 유은선 위 원
 이시백 위 원
 이원재 위 원
 이진희 위 원
 이희경 위 원
 전고필 위 원
 정유란 위 원
 조기숙 위 원
 홍태림 위 원

1. 성원 보고

박종관 위원장 : 제295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성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예. 12인 위원 모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 선언

박종관 위원장 : 12인 위원 모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번 회의를 부득이하게 영상회의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의의 패턴과 운영을 지속해서 우리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동의를 하셨으니 오늘 회의는 좋은 협의를 통해 5시 이전에 끝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회의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전차(前次) 회의 결과에 보시면 2가지 안건이 원안결 되었습니다. 하나는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이 원안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중기사업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결이 되었습니다. 중기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이시백 위원, 이원재 위원, 이희경 위원, 홍태림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시백 위원님께서는 문학과 관련해서, 이희경 위원님께서는 국제교류 관련해서, 홍태림 위원님께서는 시각과 관련해서 주로 의견을 주셨고요. 이원재 위원께서는 전략과제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중기사업계획은 세부 사업 계획을 담는 것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예산 수요를 확인하는데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세부 사업 계획을 짤 때 반영해서 기초부에서 통합적으로 검토 후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사무처장이 보고한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 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접수를 받도록 하고 이제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오늘은 4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상정된 안은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해당 규정 개정(안)은 2월로 예정되어 있는 조직개편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2022년도 창작지원사업 개편(안)에 대한 실행 동력 확충과 한국판 뉴딜이나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주요 정책 대응을 위한 조직을 재정비하고 업무별 성격과 목적을 고려한 조직 재배치로 사무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아르크비전2030과의 조직 정합성도 제고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작년의 정원에 대해서 증원 노력을 한 결과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표를 현행화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7쪽의 주요내용입니다.

기관 전략사업을 집중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전략사업본부를 신설하고 그 밑에 해당 부서와 팀을 배정합니다. 예술현장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핵심 전략사업을 개발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략사업본부를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뉴딜이나 한류 등 정부 정책 대응 사업과 연계한 ‘미래사업부’, ‘국제교류부’를 전략사업본부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 의제 및 기관 현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형 조직인 ‘전략개발팀’을 전략사업본부 안에 신설하여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예술가와 일자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인력개발원을 본부급으로 격상하여 부서와 팀을 배정하겠습니다. 예술인력육성, 일자리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핵심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단일 본부급으로 구성하고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예술인력양정부’와 ‘일자리 기획팀’을 신설하여 배치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 장르·기능으로 혼재되어 있던 본부별 체계를 재편하면서 예술 창작 지원의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는 겁니다. 문학시각예술본부와 공연예술본부로 이원화된 구성을 예술창작본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그 밑에 ‘지원총괄부’, ‘문학지원부’, ‘시각예술부’, ‘공연예술부’를 배치하는 안입니다. 기존의 공정심의부를 확대·개편해서 지원총괄부로 배치하고요. ‘보조사업 관리’ 및 ‘심의제도 운영’이 중심이었는데 이것을 재편해서 창작지원사업 총괄 기능을 강화하게 되겠습니다. 공연창작부와 공연기반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것을 공연예술부로 통합하여 사업 간 기능 조정이 용이하게 만들고 협력 작용을 높이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전략체계와 예산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아르크예술기록원’이 현재 문학시각예술본부 밑의 하위 부서로 편제되어 있었는데요. 예술확산본부로 편제 이동을 하겠습니다.

부서의 특성을 반영해서 부서명을 변경하는데요. 재무관리부는 경영지원부, 전략사업부는 미래사업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정원 조정은 아까 말씀을 드린 안입니다. 9쪽에는 신·구 조문 대비표로 현행 규정과 개정하게 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1쪽을 보시면 별지 1호로 정원표가 현행화되어 작성되어 있고 12쪽을 보시면 현행 조직도와 개정으로 인한 조직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2는 지금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각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안건번호 제854호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을 류재수 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시다.

지금 예술가의 집에 경영전략본부장, 문학시각본부장, 예술확산본부장, 기획조정부장, 사무처장이 함께 있고요. 상임감사님도 예술가의 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정책혁신부장인 정창호 부장과 송시경 본부장이 나주 본사에 위치하고 있고 노조위원장도 회의에 접속을 해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본 안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 의견서에 중요한 내용들을 보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검토 요약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십시오.

홍태림 위원 : 사전의견서는 먼저 질의가 모두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건가요? 안전번호 제854호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들 의견서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 의견서와 관련된 피드백은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사무처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받으면 되나요?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사전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릴까요? 그리고 나서 추가 질문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박경주 위원님, 홍태림 위원님 등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직도에 위원회와 소위원회 혹은 TF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맵과 같이 체계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은 다른 기관의 위원회 사례를 참고해서 조금 더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략사업본부를 신설하고 부서와 팀을 배정할 때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홍태림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조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술관운영부에 편제되어 있는 경영지원부 그러니까 시설관리 인력에 대해서는 재무관리부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관리부와 서울 본관의 시설 인력들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술관 아래에 기관실과 전기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곤란한 사정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신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태림 위원 : 현실적 어려움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미술관운영부의 시설팀이 재무관리부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물리적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영원히

이 부분은 개선되기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일단 몇 가지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이전 서울 잔류 인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승인받지 못한 인력 99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요. 그것을 떠나서 현실적으로도 전체 시설관리를 일원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의 관리 부분이..... 지금 나주에서 재무관리부가 서울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모두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고민한 것들은, 서울에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자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그때 극장과 미술관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방식으로 보면 별도의 시설 쪽 부서를 뒤편에 두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조직의 확장과 연계해서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되는 상태입니다.

홍태림 위원 :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 고민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장 해결될 일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을 때 고민을 좀 진전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할 수 있도록 나중에 몇 가지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예, 홍태림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운영부 문제로 고민을 했다가보다는 시설관리의 통합성과 향후 비전과 유사한 것을 가지고 이런 조직을 신설해서 통합관리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서울 잔류인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서 의사결정과 협의과정을 교차적으로 판단하면서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내부 안은 여러 차례 제기되고 논의된 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협의과정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일정과 조건 등을 판단하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홍태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본적인 의미는 미술관 운영에 대한 전문 인력을 조금 더 강화시키자는 측면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중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듯이 미술관 운영 예산은 10년 동안 정체되다시피 해서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여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렇게 돼야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미술공간에 있는 인력이 그만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 인력 부분은 큐레이터를 뽑는 방식으로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단기적으로는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홍태림 위원 : 예,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주 위원 : 미술관 운영과 관련해서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미술관 운영 예산이 굉장히 적은 것은 사무처나 저희 모두 잘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업 계획(안)을 짰 것을 보니까 미술관에서는 없는 예산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짰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과연 현재 있는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한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안)은 굉장히 잘 짰는데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미술관에서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를 하면서 사업 내용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관련한 프로젝트 매니저나 일용임금 형태로 사업에 대한 운영인력을 단기 인력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활용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증원을 해 달라.” 이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두 위원님들의 말씀은 미술관 운영 활동 강화와 관련된 부분이 조직개편에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당장 이것을 조직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흥태림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설관리의 주 업무와 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여 양쪽 모두 강화를 하는 안. 그리고 점차적으로 미술관의 역할이나 크기 같은 것들을 키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번 조직개편에 대안을 내지는 못합니다만 향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주신 안이 조직기구와 기관 운영에 반영되도록 잘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시백 위원 : 이번 조직 구성의 개선안은 다소 산만하던 것을 통합하고 바람직하게 개선되었다고 보는데요. 부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재성장부’와 예술부의 ‘인력양성부’의 개념에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인재성장부’의 정체성을 보니까 주로 인사관리나 교육인데요. 그에 비춰서 ‘인재성장부’라는 부서명이 적절한가요?

박종관 위원장 : 결국 인사부인데요. 요즘 새로운 행정 용어상 인사부라고 하지 않고 인재성장 업무라고 하니까 그 업무를 선진적으로 반영해 본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 사무처 조직 내의 인재성장 문제와 예술인 전체의 인력 문제와 혼돈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전 논의를 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인재성장부는 2019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처음으로 야심 차게..... 그 때까지는 인사부서라는 말을 쓰고요.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 인사업무를 재무부서 밑에 배치를 시켜서 팀의 일로 하다가 독립부서로 확장을 시키면서 우리 위원회 내의 인력개발과 조직운영의 효율, 인재개발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부서를 만든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혼돈의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술인력양성부’라고 함으로 해서 외부를 인재성장이라고 하면서 내부를 이렇게 관장하는 것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이시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이 많아서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희 위원 : 질문과 의견입니다. 일단 개편된 구조 안에서 작년에 TF가 운영되기도 했고 대토론회에서 제기되기도 했고요. 주요한 예술현장의 의제라고 생각하는 성폭력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된 개편안이라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성폭력 대응 체계에 대한 워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인지 관점을 갖추기 위해서 예술위가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지가 조직개편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략사업본부에 전략개발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략개발팀에서 해야 될 주요 역할에서 젠더 이슈나 성평등 이슈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예술위가 향후 조직개편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목적의식으로 갖고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지가 반영된 조직구조나 구조에 대한 역할 부분이 작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설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성폭력 TF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으로 지원총괄부에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정심의부가 심의 중심에 방점을 둔 조직이고 저희가 지원총괄부로 한 것은, 기본적으로 장르별 중심 체제에서 다른 장르도 넘나드는 조직이기도 하고 예술인의 권리라든가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통합적인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원총괄부로 확대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안에 성폭력 전담 요원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희경 위원 : 추가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진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지난번 위원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략사업본부라는 새로운 부서가 생기는 거잖아요? 새로운 부서가 생기는 것이고 미래사업부나 국제교류부도 거기에 포함된 것은 너무나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국제교류가 우리의 전략적인 주제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략개발팀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뜩이나 예술창작본부가 통합되어 지원총괄부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결이 다를 수 있는 문제를 통합해서 1명의 담당자가 다루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안을 한 것이 팀 같은 형태로, 아니면 아예 전략개발팀이라고 하는 것에 성폭력 문제 등을 주요하게 다룬다는 것이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문제 등이 단지 지원사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술계 전반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예술위가 폭넓게 포괄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뭔가 다른 방식의 반영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조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담회 때는 이희경 위원님께서 지원총괄부의 업무를 전략사업본부에 위치시켜서 하면 어떻겠느냐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성폭력 TF에서 해온 작업. “이 작업을 조직 내에서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지원총괄부에 들어갔을 경우에 일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진희 위원님 말씀의 핵심은 현재 있는 불공정 관행을 넘어서기 위해서 만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원활한 지원 사업 안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위한 제도 장치를 여는 공정심의부라고 하는 역할과 명칭에 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지원총괄부’라는 명칭이 분명하게 목적성이 강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여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심의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는 지원기구니까 지원 사업 안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물론 그 이상의 일도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 사업 내에서 불공정 관행이 개선된 제도를 실천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 면으로는 전체적인 이슈에 대응하고 그런 것들이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강화되고 정책을 통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예술계의 목소리를 대변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 이것이 지원 사업에 반영되어 실천되도록 명백하고 명확하게 부서의 이름이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제기로 들었습니다. “그래야 조직개편을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우선 이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함부로 해석한 것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지원총괄부서와 공정심의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진희 위원님의 지적이 옳으시거든요. “공정심의가 지원총괄이 되었다고 해서 명백하게 의지가 들어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지금 예술창작본부는 집행부서의 성격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원총괄부는 우리 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성폭력이 생겼을 때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요. 만일 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적인 의제로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고 하면 그 논의 수준은 전략개발팀에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개발팀에서 하는 것은 단순히 위원회만이 아니라 예술계 전체에 대한 정책적인 의제로 논의가 필요할 때는, 전략개발팀에 적시했듯이 위원회의 주요한 과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팀이 될 것 같고요. 위원회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된 아니면 사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원칙과 지침과 이행에 대해서는 예술창작본부의 지원총괄부에서 하는 게 행정적인 역할로는 적합하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이진희 위원님께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본부장의 답변은 전략개발팀과 지원총괄부 모두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배치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전효관 사무처장 : 사실 성폭력과 관련하여 현안 대응 차원에서 공정심의부에서 담당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원총괄부를 조금 개편하자는 얘기는 심의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현안을 넘어서서 공정 보상이라든지 성 평등 문화 등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틀을 그 안에 만든 것이어서 이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략개발팀 안에 이런 것을 넣자는 것도, 저는 사실 전략개발팀은 사회적 의제가 되는 것들과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단위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소수자 예술 같은

것은 해 보자.”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다루는 것인데요. 그런 대응체계를 조직화 한 것이 그 안에 어떤 전략을 미리 선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먼저 이진희 위원님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무처장님이 말씀해 주신 역할의 구획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했던 것은 뭐냐면 실제로 직접적인 사건에 대한 지원 대응체계 그리고 대응하는 체계 안에서 어떤 제도의 변화나 구조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지원총괄부 안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의제를 팀의 내용에 명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어젠다든지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전략개발팀에서 다룰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략개발팀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일반적으로 성장과 개발, 변화 등을 추진하는 팀에 쓰여 있는 일반적인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략개발팀이 사회적인 의제들이나 내용들이 등장할 때 그런 것들을 포착해서 예술위 안의 역할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들이 명시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사실 설명을 듣기 전에 소수자나 젠더 등의 의제들을 이 부서에서 바로 다룰 계획이라는 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전략개발팀에서 사회적으로 부상하는 예술계의 의제들을 다루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부서개편에 대한 설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하게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팀에 대한 소개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명료하게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 제 문제의식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정리를 하자면 13쪽에 있는 전략사업본부 3개 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소략해서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예술계 현안을 포함한 사회적 관련된 전략 개발” 이 부분을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분명하게 목표를 지어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우선 이것은 제안으로 두고 이희경 위원님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저는 추가할 의견이 없습니다. 이진희 위원님이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 정도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두 분의 위원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예술계 현안을 포함한 사회적 의제와 관련된 전략개발” 이 내용을 포함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희경 위원 : 여쭙보는 것인데요. 사회적 의제 앞에 ‘성평등’ 이런 용어가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박종관 위원장 : ‘성평등’을 포함하여 “성평등 불공정 관행, 예술계 현안을 포함한 사회적 의제와 관련된 전략 개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예, 그런 식으로 조금 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정도의 위당을 넣어서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이 규정이 통과되면 그에 따른 업무분쟁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규정적인 표현이 들어가는데요. 전략개발팀에 준비하고 있는 표현이 우리 위원회 기관과 정부의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 대응에 관한 업무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위원회의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것은 당연히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등에서 제안된 과제들이 위원회 단위에서 현안과 과제로 된다면 그것이 성폭력 관련 사항이든 어떤 사항이든 이쪽에서 다룰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은 지원총괄부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논의한 내용을 받아 주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시죠? 지금 회의 중에 나왔던 내용은 그렇게 받아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성평등 불공정 등 예술계의 현안을 포함한 사회적 의제와 관련된 전략개발” 이 부분을 집어넣어서 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범위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가 성폭력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주요 의제로 선정한 것들이 각 소위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이 전략개발팀을 만든 이유가 소위 활동을 비롯한 위원회가 결정한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한 문제 해결로 전략개발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전효관 사무처장 : 전략개발팀을 신설하자는 얘기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의체계와 실행 체계의 링크 기능이 약해서 논의가 된 것들을 사업과 정책으로 어떻게 발굴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어서요. 저는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위원회나 사회적인 논의체계를 수렴하는 기능에 포커싱 되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어젠다를 다룬다는 것을 명기하는 게 핵심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성폭력TF 등을 통해서 성폭력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의 의제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여기에 어떤 영역을 명기하는 것은 핵심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진희 위원 : 예,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위당 자체에 젠더, 소수자, 불공정관행 이라는 위당을 넣자는 것이 제 주장의 핵심이 아니고요.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개발팀에서 이런 사회적 의제에 대한 접근성과 예술인에 대한 논의나 기능체계로서 전략개발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동의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할이라는 것은 뚜렷하게 지향성이 명확하지 않을 때, 지향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면한 예술현장의 핵심적인 의제들을 떨어뜨리고 갈 수는 없을 텐데요. 젠더 관련한 것이나 소수자 관련한 어젠다는 주의 깊게 계속 강조하거나 명시하지 않으면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책이 예술위원회에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른 팀 속에 주요 내용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젠다를 하겠다는 “무엇 등”이라고 쓰는 게 전체적인 작성 톤에도 맞지가 않고 기술적으로도 매끄럽거나 아름답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젠더 어젠다를 어떤 방식으로든 예술위가 이후의 개편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주력하겠다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집중도는 상당히 떨어진다는 취지로 강조해서 어떻게 개편안에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이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사실 사회적인 흐름도 그렇게 가고 있고 저희 위원회 소위원회 체계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현장소통이나 정책혁신 외에도 성평등 소위를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안에 대해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조직이나 편제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략개발팀 안에 그 얘기를 넣었을 때 형식상의 모순이 있다는 얘기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희경 위원 :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너무 이해가 되고 사무처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도 사실 이진희 위원님과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어요. 조직개편을 한 내용에 했던 작업들이 물어보면 좋겠는데 이것만 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문구 한두 개라도 그런 게 스며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도 사실 그것이 고민인 것입니다.

박경주 위원 :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전략개발팀에서 소수자 문제도 다뤄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도 이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워딩만 봤을 때 소수자 이슈를 다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워딩 자체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되어 있어서요. 저는 앞으로 문화예술위원회 기금이 고갈되니까 기금 고갈에 대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짜는 부서로만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자면 이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에서 이런 식으로 워딩을 하지 말고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워딩을 만들기 전에 전략개발팀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들과 소통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것도 넣을 수 있다.”, “저것도 넣을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전략개발팀이 새로 생기는 것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의 핵심이 뭐냐 하면, “너무 포괄적인 정의를 하니까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꼭 적시되어야 할 분명한 목표지점은 열거해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목표 상의 혼돈 지점이 있다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으면 비슷비슷한 의견을 자꾸 내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리하자면 논의가 진전되어서 전략개발팀과 사회적 의제나 예술계의 불공정관행이라든가 성 평등, 젠더, 소수자 문제 등은 분명히 예술계가 지양해야 할 지점이므로 목표를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으니 이른바 지원사업에서 나타난 것을 지원총괄부가, 그리고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는 전략개발팀으로 나뉘어서 목표를 배치하고 그 부분을 회의자료 13쪽의 전략개발팀의 부기하여 목표를 분명히 드러낸다는 것을 논의한 것입니다. 이 논의가 크게 잘못되지 않았으면 이 논의를 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도 추가로 논의를 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위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폭력, 불공정관행 등 예술계의 현안을 포함한 사회적 의제” 이 부분을 집어넣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합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논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희 위원 : 예, 서로 기조에 동의를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로 제안사유나 (3) 번의 주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 기조로 드러내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 표나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조 안에서는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구체적인 위당이 들어가는 방식은 기술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원재 위원 :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논의된 것에 동의를 하고요. 문구 수정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성 평등’, ‘성폭력’이라는 특정 의제가 앞에 들어오니까 혼란이 생기는 것 같고요. 문구 수정을 하려면 지금 있는 문구의 뒷부분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 자체를 명시하지 않고 우리가 내용에 동의를 하고 사회적 의제 대응 전략 뒤에 넣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에 괄호를 쳐서 성평등이나 불공정 문제를 명시하는 안입니다. 이 2가지 안을 제안을 드리구요. 앞에 들어오면 그것이 큰 화두처럼 보여서 정체성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부장님이 정리를 해 주세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지금 붙임 2에 있는 것은 변경에 따른 업무분장(안)이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사무처 운영규정 시행세칙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전략개발팀의 위당에 있어서 사회적 의제 개발과 성폭력, 불공정 등 내용을 보완하고 실행체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까 사무처의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략 개발 기능과 만들어진 개발 전략에 따라서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이냐는 부분은 시행세칙을 만들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재 위원 : 죄송한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예술창작본부 4개 부서에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에서 문학과 시각예술은 세부 장르의 언급이 없는데 공연예술은 세부 장르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구조적으로 일관성이 없거든요. 공연예술

부도 위와 동일하게 공연 예술분야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문학도 희곡, 수필 등으로 기술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의 구체성을 명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면 문학과 시각도 세부 장르로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전효관 사무처장 : 13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학지원부, 시각예술부, 공연예술부의 균형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이원재 위원 : 그러니까 기술한 형식이 다르잖아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붙임 2로 되어 있는 각 부서별 업무분장은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차원이고요. 구체적으로 분장을 만드는 것은 세칙에서 만들게 됩니다. 앞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포함해서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학은 문학 분야, 시각은 시각분야로 되어 있는데 공연예술부는 연극, 무용, 음악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 달리한 것 같다는 부분은 세칙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참고로 다른 곳에서 논란이 여러 번 된 적이 있어서요. 현장은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논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논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요 조직개편 내용과 역할들을 보장하고 사무처가 낸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논의가 된 조직 변경에 대한 업무분장(안)이라든가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안을 해 보겠습니다. 현행 1처 4본부 1극장 1관 1실 19부를 사무처가 제출한 원안대로 1처 4본부 1원 1극장 1관 1실 18부 2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 기구를 개편하는 개정(안)을 사무처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회의를 시작한지 55분이 지났는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취업규칙 개정(안)입니다. 강성규 인재성장부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나주 본사에서 강성규 부장이 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규 인재성장부장 : 인재성장부 강성규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부장님은 자리를 유지하시고 경영전략본부장이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안전번호 제855호 취업규칙 개정(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20년 노사합의 결과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정년퇴직 일자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퇴직일이 생년월일이 정년이 속한 해의 1월~6월에 해당할 경우에는 6월 30일, 7월~12월에 해당할 경우에는 12월 31일 퇴직을 했는데요. 노사합의에 따라서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정년이 속한 해의 12월 31일에 퇴직을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의안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림 위원 : 저는 의견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 사안은 우리 회사 직원들 중에서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과 관련된 취업규칙에 관한 부분이고 상위 법령에 따른 저희 내부 규정의 개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냥 동의해서 받아 주시고 의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렇다면 사무처가 올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시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면 손을 들거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은 임원 및 사무처장의 보수 등에 관한 규정(안)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인재성장부장의 마이크에 혼선이 있으니 박두현 경영본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예, 안건번호 제856호 임원 및 사무처장의 보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니다. 이 규정 개정(안)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정부의 「202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2021년 공공기관 임원 기본연봉 통보」 및 「공공기관 임원의 퇴직금 산정기준 관련 통보」에 따라서 2021년도 예술위 임원 및 직원의 보수 관련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원 및 사무처장의 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원장, 감사, 사무처장 기본연봉을 기존 대비 0.9%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정부의 공통사항입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의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정부의 방침인데요. 이 내용은 0.9%를 인상하되 올해는 전년도 수준의 기준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부칙으로 담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임원에 대한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직원과 관련된 보수 규정에서는 임원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성과연봉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직급별 초임연봉을 기존 대비 0.9% 인상하는 안입니다. 1급부터 5급까지의 초임연봉을 0.9% 인상하고 신입사원 직급은 기존 직원 간 형평성 문제로 인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 역시 정부의 임금 인상률 등 상위 계획에 의한 저희 위원회 내부의 종속 조치 라서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질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희경 위원 : 동의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혹시 반대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이건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안건은 다원예술 창작지원 사업계획(안)입니다. 본 보고안건은 시각예술부의 이윤희 부장이 나주 본청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24페이지입니다. 안건번호 제857호입니다. 다원예술 창작지원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부터 주요사항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서 그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추진 배경은 2021년에 기초예술 다양성 증진사업으로 해서 총 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다원예술 분야가 5억 원입니다. 그렇게해서 작년에 사업혁신 TF와 함께 총 6회에 걸쳐서 지원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단 다원예술 창작지원 대상이고 보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단어들을 써서 기술을 했는데요. 다양성, 실험성 등에 지향성을 두는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와 두 번째 '○'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예술위원회의 지금 지원 사업이 아닌 그 사업에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사업들도 2021년도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 현장에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은 준비와 실현 지원 등 2단계로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의 예산이 5억 원 규모이라서 창작을 실현하고 창작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는 활동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축제나 행사성 관련 지원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심의 관련해서는 전담심의위원제 운영을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원예술 공론화 관련된 부분은 토론회를 상·하반기 개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창작준비지원과 관련된 세부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준비 지원은 사전 연구나 리서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현 지원은 실제로 제작을 하거나 실현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지원 예산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는 5억 원 중에 지원금이 4억 8,000만 원이고요. 심의와 관련된 운영비로 2,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2월부터 3월까지 공고를 길게 할 예정이고요. 4월에 심의를 하고 5월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시각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는데요.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몇 년 만에 복원이 되는 사업이고 지원 사업이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질의를 해 주시고 토론과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의가 종료된 이후에 시각예술부장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보내 주신 의견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면질의에 대한 의견을 들을까요? 이윤희 부장은 보고를 해 주세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예, 홍태림 위원님께서 3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축제는 왜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축제나 행사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예산도 너무 적고 축제나 페스티벌을 지원하게 되면 적은 규모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작 활동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축제나 행사성 지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원예술 지원뿐만 아니라 사례비에 대한 평균단가 그리고 공정단가를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획자별로 또는 작가별로 제작하는 것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례비에 대한 평균단가를 저희가 제시했을 때 오히려 반감도 있을 수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시지원 같은 경우 5,000만 원을 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

“기획비는 10~15% 정도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획비가 300만 원입니다.,” “기획비가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제안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과 얘기를 나눈 다음에 제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26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견들이 많았는데요. 저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장르별 또는 기능별로 지원 사업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창작활동도 지원 대상인가 아닌가?”라는 지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26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부분도 지원은 할 수 있게 톤 다운되어서 기술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대략 보고를 받았습시다만, 축제 지원 여부 문제는 홍태림 위원님의 추가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조금 더 보태주세요.

홍태림 위원 : 제 얘기는 다원예술 기획 같은 경우에는 기획명이라든지 여러 성격상 축제라는 성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상 너무 적기 때문에 축제라는 형식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가 기획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축제를 제외하고 나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원예술 행사의 여러 가지 다원성을 고려하면 축제라는 성격을 갖고 기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오해 없이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전효관 사무처장 : 지금 홍태림 위원이 주신 의견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원예술이 지금까지 성장해온 경로가 축제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성장한 부분이 있어서요. 일반 축제는 제외하되 여러 주체들이 포함해서 만드는 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 대상에 넣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변경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부분은 심의 기능에서 처리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종합해서 드리면, 이번에 시각분야의 예산 한계나 우려는 알겠는데 다원으로 특성화된 축제 같은 경우에는 포함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개인 의견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홍태림 위원님이 사전에 의견주신 것에 대해서 사무처장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 : 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가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일단 이 사업은 다원예술 창작지원 사업으로 안 보이고 다양성 사업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다양성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실 다원적 가치와 탈구획주의가 핵심이죠. 이렇게 지원할 것이면 기초예술 다양성 사업이라고 하는 게 솔직할 것 같고 그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편협한 방식으

로 다원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면 그냥 기초다양성예술 사업으로 할 것이지 왜 다원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축제의 수준이 아니라 형식과 구획주의를 완전히 심의를 해야 다원예술의 가치가 살 겁니다. 이렇게 나가면 기존 장르 예술에서 수용이 안 되거나 실험적인 것을 그냥 지원하는 수준인 것이죠. 그런데 실험 예술이라든지 좀 다양성은 좀 다른 것입니다. 다원예술의 핵심적인 종다양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 경향성이 강조된 워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개별적 경향성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르와 형식의 경계를 떠나면 탈구획주의인 것이지 개별적 경향성이라고 하니까 개인적 실험성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원적 가치의 확산 그런 예술적 가치를 발굴하는 것, 지원하는 것. 지금 현재 다원예술을 하는 현장 플랫폼과는 하나도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종다양성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종다양성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기초예술다양성 사업으로 하자.” 그리고 창작도 창작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회적 협력을 확장하고 싶어서 다원예술이라는 것을 장르가 아닌 장르처럼 다루는 것인데요. 장르예술이 꼭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르예술이 아닌 다원 쪽 예술지원을 하려면 창작준비 등이 아니라 다원의 사회적 가치가 확장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태림 위원 : 이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원예술 사업이 다원이라는 가치와 다양성의 가치가 혼재되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복구가 안 되고 있다가 처음 복구되는 다원예술 사업인데요. 처음으로 공개하는 사업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 현장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요. 이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다양성은 되게 중요한 가치인데요. 이번에 문학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때 그동안 안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던 SF 장르 같은 것도 같이 열었던 것처럼 기존에 기초예술 관련된 지원사업에서 다양성을 어떻게 열어 나갈 것인가? 다양성 문제는 그쪽에서 풀어나가든가 별도로 풀어나가든가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숙 위원 : 우선 다원예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원예술이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합의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원예술 얘기가 나온 맥락이, 예를 들어 어떤 예술가가 공연예술을 하는데 기초예술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연극도 들어가고 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악도 들어갑니다. 정말 골고루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지원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연극으로 지원을 하면 “연극이 아니다.”, 무용으로 지원하면 “무용이 아니다.”, 음악으로 하면 “음악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지원을 할까요?”라고 물어보면 문예위의 직원들이 “가장 많은 요소가 있는 걸로 하라.”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예술 쪽에서도 이런 지원제도 때문에 뭔가 새로운 융합적인 시도를 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예술 측면에서 다양성을 열어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예술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현장에서 공동체로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예술이 되고 새로운 차원의 예술을 권장하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거든

요. 그래서 지금 2가지 측면에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제가 된다, 안 된다는 좀 아닌 것이고요. 지금은 적은 예산이지만 이 2가지를 모두 포용하면서 한두 번 해 보면서 내용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의 예술형태와 기초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넘나들면서 하는 통섭적인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열어서 복원을 해 보고요. 그러면서 다원예술의 구역을 잡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경 위원 : 저는 홍태림 위원님이 의견서에 쓰셨던 창작지원대상에 대한 언급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히려 저는 창작지원대상에 2가지를 써 놓고 밑에 예를 들어놓은 것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예술장르 경계의 융합, 확장, 탈피” 이 얘기하고 “다원예술을 규정하지 않으나” 이 얘기는 약간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다원예술에 대해서 합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포괄적으로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드는 게 “적절할까?”라는 의문입니다.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지원되는 것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경주 위원 : 저희가 현장소통 소위의 의견을 받아서 문구를 수정한 것이 있거든요. 수정하기 전과 수정 후가 혼재된 것 같아서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지금 정확하게 바뀐 내용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최종안 26페이지를 보시면 “장르·형식·내용 등에 있어 위원회의 장르별·기능별 지원 사업의 경계 밖에서” 이 문구가 기존 내용과 바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원예술로 규정하지 않으나”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술의 힘에 근거하면 다원예술의 개념을 새롭게 확인할 필요는 없거든요. 다원예술은 그 개념이나 합의한 것이 비록 오래된 것이라고 해도 이미 합의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원재 위원님의 지적대로 이것은 다원예술보다 지나치게 다양성에 가깝다는 문제 제기를 받으면 논의해야 할 범위들이 커지는 것인데요. 그래도 이게 오랫동안 현장과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나온 안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원점에서 출발해서 얼마나 타당하게 설계가 되었는가를 봐야 하는 것인데요. 이 논의의 출발 지점이 홍태림 위원님의 사전 문제 제기 내용이었는데요. “축제를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보상기준이나 공정 보상 문제의 표준을 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윤희 부장의 설명대로 당장 어떤 표준을 구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지원 제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원의 사각과 경계에 있는 많은 지원사업들이 다원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하자.”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이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 지원제도에서 감당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다원에 몰려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것 중에 좋은 예인 “웹 소설이 소설이냐 다원이냐?” 이렇게

경계를 짓자고 하면 매우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현재는 문학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다원에서 감당을 해야 되지만 잘 발전을 한다면 그것은 매체가 바뀌었을 뿐이지 문학이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모두 정리를 해야 할지 일거리가 좀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보죠. 일단 축제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처장의 보완대로 다원의 속성이 분명한 사업이라면 과거에 이 사업이 없어지기 이전에도 축제를 지원한 사례가 있으니 축제 지원을 지원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비상업대중 그다음에 소수자 다양성에 목적으로 공모하는 속성이 분명한 그리고 이것은 사실 다원의 경계에 있으면서도 전 장르에서 속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꾸로 문제인 것인데요. 그것 때문에 다원예술이라는 개념이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장르의 융합이라든가 융·통합적인 장르로 구현되는 예술 등을 포함하고 이런 것의 실험적 대안적 활동 전체를 다원이라고 규정한다고 했을 때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개념 변화의 부분이 있고 저희가 감당해야 할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 무르익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의견을 낸 것이니까 거꾸로 위원님들이 정리를 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항목에서 장르별·기능별 사업에 포함되기 어려운 창작활동이라고 해서 예를 든 것에 대해서 봤으면 하는데요. 음악 같은 경우 사운드 아트, 노이즈 아트 등 2가지를 쓰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다원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음악에서 확장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기보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이원재 위원 : 저는 여기까지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느냐 하면, 일단 종다양성과 다원주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요. 논의 과정에 참여를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하기는 한데요. 것은 생물의 종다양성에서 가져온 개념이잖아요? 그것은 기존 종들의 생태계 다양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접근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술장르라는 종 안에서 다양성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원주의라는 것은 종다양성의 전제 하에 새로운 종의 등장이나 변종, 합종이 가능한 다원적 가치를 지원하는 게 지원트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지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반대 구획주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나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원 예술 지원사업의 하위 장르로 다원예술이 명시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선택할 수가 있죠. 다원예술 1기부터 엄청나게 연구하고 정리한 것이 있는데 퇴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현실이나 구획주의나 기존 장르와 연계하려고 하면 안 되고 다원예술 트랙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만일 이원재 위원님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면, 저희가 계속해서 간담회와 위원회를 교차해서 개최할 것인데요. 저희가 이 논의를 숙성시킬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둘러서 의결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지원 체도를 펼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계획상 보면 4월에 심의를 진행하여 5월에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시간 여유가 있는데요. 박경주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조금 더 논

의해서 숙성을 하고 성숙한 안으로 2월 간담회 때 추가 논의를 해서 확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박경주 위원 : 저도 그런 의견이었고요. 2월 초에 한 번 더 자문 위원들을 모시고 얘기를 하려고 계획되어 있다가 지난번에 사무처장님과의 회의 때 공고가 너무 늦으면 현장에서는 많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연기하는 것에 대해 무리는 없어요. 복원되는 시점이라서 잘 나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것과 현장 소통 소위를 하고 나서 고친 내용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천천히 가는 것에 대해서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2년도 사업을 짚잖아요? 그러다가 2022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축제는 그때 넣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뺐 것이지 고의적으로 빼자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이해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박경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내주시면 사무처의 일정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윤희 부장님, 저희가 설 연휴를 지나고 나서 간담회를 할 예정인데 그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 지어주면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세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행정절차상 문제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다면 다원예술 창작지원 사업 계획(안)은 지금 주신 의견과 추가 의견을 조금 더 듣는 시간을 갖고 간담회를 거쳐서 제안 설명과 폭넓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서면의결로 가닥을 잡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의결 수순을 잡아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추가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효관 사무처장 : 수순은 그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이원재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이 핵심인데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의 지원 장르로 볼 것이냐?”, “하나의 새로운 가치 체계로 볼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원 형식을 짜겠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사전에 탄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창작을 넘어서는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원 사업의 범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작업을 시각예술부 중심으로 빨리 만들어서 저희가 새로운 안을 만들고 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회로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사무처의 추가(안)을 간담회 이전까지 만들어오라고 지시하고 그 결과를 간담회 때 검토하고 서면의결로 진행하겠다고 의결 수순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하신 분은 1기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전효관 씨의 의견입니다.

박경주 위원 : 저는 사무처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2월 4일에 자문했던 분들과 간담회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논의되는 내용도 같이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며칠이죠?

박경주 위원 : 2월 4일로 잡혀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 사무처 간담회 이전까지 숙성시킨 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이 안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죠?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의결을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이렇게 해서 의결안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지금 5개의 보고안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미술전시관람료지원 사업 연장계획(안)이 시각예술부의 보고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차, 11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와 9차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9차 성평등 예술위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등 소위원회 활동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시각예술부 이윤희 부장의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논의 수순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미술전시관람료지원 사업이 2020년도 추경 당시 5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일단 추진 현황을 보시면 할인권 발급 현황으로 41,000장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으로 1억 6,300만 원 정도라서 집행률이 3.1%에 불과합니다. 35페이지를 보시면 코로나19 대비해서 올해 6월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예매처 추가라든지 할인권 소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본 건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한 보고사항으로 생각하지 말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논의를 해야 하면 논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주 위원 : 궁금해서 여쭙보는데요. 34쪽을 보시면 할인권 지원금의 집행률이 0.6%고 운영비가 33.3%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구조인가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옆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을 보시면 문학의 할인권 지원금이 총 48 억인데 그중에서 3,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4만 장 정도라서 9,300만 원은 올해 정산을 해야 하는 것으로 비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은 0.6%가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4억 중에 1억 3,300만 원을 써서 33.3% 집행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러니까 운영비와 할인권 지원금의 비례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지원금의 집행률이 0.6%든 60%든 간에 이 정도로 진행되는 게 맞는 것이죠?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예, 집행률은 낮더라도 시스템을 새로 마련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홍보나 인력을 사용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윤주 위원 : 제가 이것을 여쭙보는 이유는 지난번에 미술전시관람료 플러스 공연예술 관련해서도 관람지원료 사업에 대해서 격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잘 기록되어서 똑같은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방식의 사업이라는 게..... 지금 지원금 집행률이 0.6%라는 정말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록했다가 다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희경 위원 : 덧붙이면 미술전시관람료지원 사업 연장 계획을 보고나니까 “공연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공연도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송시경 본부장이나 공연 쪽에서 보고를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이윤희 부장이 얘기했던 전시관람료와 마찬가지로 공연도 같은 현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비 부분의 포션은 높고 할인권은 낮습니다. 이유 자체는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 쿠폰을 멈춰놔서 그렇고요. 이게 활성화가 되면 할inqu에 대한 집행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언제 다시 재개할지 부분은 문체부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통합적으로 다른 소비 쿠폰 6개를 총괄해서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6월까지는 기간 연장을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윤주 위원 :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예술관람료지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대학에서 단체관람을 한다는 게 꽤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관람률을 높이는데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예술경영학과에서도 이런 단체관람을 시도하려고 하니까 공연과 상관없는 부처에서는 무조건 “공연 관람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라는 것을 제가 싸우고 싸워서 겨우 20명이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공연장에는 확진자가 1명도 없고요.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많이들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드릴게요.”라는 것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 예술경영학과의 교수들조차도 혹은 예술계 대학의 교수들 대부분이 학교의 방침. 그러니까 문체부의 지원과 학교 행정에서의 방침이 부딪히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 무조건 위험하다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관람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할 수가 있다면 예술위 차원에서라도 예술계 학교의 교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관람료 지원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모범적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공연장에 가서 관람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이 캠페인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요 기관들, 공연과 관련된 주요 기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관람료지원 같은 실질적인 혜택도 주면서 단체관람을 유도하는 식으로 해서 공연예술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발을 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잘 알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런데 관람료지원은 막혀 있지 않나요?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예, 지금 현재는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중대본 쪽으로는 막으려고 하고 뮤지컬협회 등 예술계에서는 열라는 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시점에서 다시 재개를 하면 공연예술계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예경 쪽에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상임감사님이..... 국무총리께서 중대본 위원장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총리실에 접촉해서 공연장 안전문제 등과 함께 공연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강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연장에서는 직접 감염 사태가 1건도 일어나지 않아서 안전한 공간이니 공연환경을 구축해 달라는 것을 저도 가서 말씀을 드렸고 정유란 위원님도 같이 참석 했습니다. 물론 상임감사님도 직접 총리실 차장과 직접 접촉을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로서는 힘에 부칠 만큼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손에 쥘 것이 없어서 현장 예술계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고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라는 후회스러움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는 할 수 있는 최대한 목소리를 내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프로듀서협회부터 시작해서 문화부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본 회의에서도 이례적으로 문화부가 다른 일에 비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역이라는 것의 전체 지침에서 보면 모순도 있지만 그 지침을 개별 요구로 넘어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아마 설 이후에 방역지침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우선 고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강한 기대를 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감사님이 조금 말씀을 보태 주시겠습니까?

남요원 감사 : 지금 정책수요를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당국의 2021년도 재정운영계획 목표를 보면 2021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정부 재정의 68%를 전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동력을 갖겠다는 기조 방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관람료지원사업이 2020년도 사업인데 이 예산을 금년도 2021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홀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니냐?”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된 정책이 나오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말씀은 이렇게 했지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위원회로서는 힘에 부칠 정도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희 위원 : 간단한 아이디어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연계 소비지원은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소외계층 확대 부분에서 새터민,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일 텐데요. 문화누리카드와 연계할 때 당사자 외에 활동지원사나 조력자들 그러니까 2인, 3인 내외로 당사자 외 다른 사람도 같이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소외계층 확대가 배분된다면 당사자 혼자 지원을 받을 때보다 활용도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시각예술부장이 답변을 하시죠.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위원회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그 점이 참 어려워요. 손에 받아 쥌 것이 없으니까 “노력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원재 위원 : 저희가 안 하는 일에 대해서 생색내자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활동이 공유되는 게 필요한데요. 위원들끼리 공유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랬을 때 예술위가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런 게 해결되는 것을 보여줘야 예술위원회에 대한 현장의 신뢰나 힘이 모여져서 선순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해결이 되더라도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현장과의 관계를 보면 그냥 중대본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성과주의나 생색을 내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봅니다. 그 프로세스가 작동되어야 다른 문제들. 문예진흥기금이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등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노력은 하고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래서 지난번 총리와 의 목요 대화를 마치고는 이시백 위원님, 정유란 위원님 그리고 제가 함께 이런 얘기를 했다고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회의록도 소통을 하는 하나의 창구니까 위원회 때 적극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현장에 알려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재 위원 : 조금만 보태면 그런 예시를 들어주신 것도 좋은데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 보도자료도 냈으면 좋겠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윤주 위원 :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정책 분야에 계신 분들과 논의할 때 그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여쭙보는 것인데요. 예술위만이 아니라 공연예술을 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공연장이나 관련된 다른 기관이 연합해서 성명서를 내든 강력한 액션을 보일 수는 없는 건가요?

박종관 위원장 : 필요하죠.

강윤주 위원 : 물론 지금 잘 풀릴 수도 있을 거라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방침을 바꿔달라고 액션을 취하는 게, 아까 이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혼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틀림없이 부정적 댓글이 달리고요. 그렇지만 많은 기관들이 연계를 하던 캠페인성으로 하는 액션을 보여주는 건 어느 기관 하나가 “우리가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문체부도 그것을 알면 중대본에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연합이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강윤주 위원님이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것처럼 위원회를 포함해서, 특히 극장이나 프로듀서협회는 직접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방역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설득하는 것을 문화부가 창구로 해서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방역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이나 성명 등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나 하면 전체 사회에 각 영역별로 해당사항들이 조금씩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에 집중하는 방법이 좋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목요 대화라든지 관계자를 설득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인데요.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게 좋을지는 국론의 성격에 달린 것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예술계는 열심히 뛰고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데에 힘을 보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 사안에 대해서 접수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정유란 위원 : 말씀이 나와서 저도 의견을 보태고 싶은데요.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공연프

로듀서협회나 뮤지컬협회에서 입장을 낼 때 저도 회원으로서 동참을 해서 입장을 같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뮤지컬협회나 프로듀서협회 등 관련 협회들이 성명을 발표할 때 문체부와 사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여쭙고 싶은 부분인데요. 뮤지컬협회는 뮤지컬협회의 회원으로서 입장이 있고 공연프로듀서협회도 회원으로서의 입장이 있는데요. 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표명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것은 저희가 작년 8월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8월에 본격적으로 각종 장치 등을 고려해서 코로나 이후의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형식의 전략을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가 8월 15일 이후로 2차 대규모 확산을 만나면서 저희의 전략적 대응이 모두 흐트러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내용 속에 자꾸 반복이 되는데 저희 위원회로서는 굉장히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분에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 곳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시고 의견을 내고 계시기에 그런 의견들이 전제되고, 저희가 정책의 방향 등을 지원사업으로 실천하는 식의 조합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대로 만약 우리 위원회가 어떤 대외적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연히 예술계를 대표하는 지원기구로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근거를 세워주는 것은 얼마든지 필요하니 그것은 논의를 하시고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실무 차원에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접수를 받을까 합니다.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보고안건은 소위원회 활동보고인데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이 나주 본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소통 소위원회와 정책혁신 소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결과를 차례로 보고를 받고 소위원장인 위원님들께서 보완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보완해 주시는 방식으로 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소통 소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9일에 10차 회의가 있었고 1월 13일에 1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저께 회의가 또 있었는데 결과보고를 다음 달에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이 있어서 한 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9일 10차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는 현장소통 소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제안에 다원예술 지원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올해의 후원인 대상 관련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현장소통 소위원회 소통창구 운영과 관련된 논의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룹 단위로 페이스북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 계속 글이 뒤로 밀려서 페이지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저희가 답변을 달 때 개별 위원님들의 이름으로 다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현장소통 소위원회의 이름으로 페이지를 만들고 그

이름을 통해서 답변을 다는 게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소통창구 운영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장소통 소위원회 지역간담회 일정 논의는 당초에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이나 2월까지 해서 9개 권역별로 지역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향했던 것은 대면 간담회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이 시기에 간담회를 하게 되면 지역의 다양한 의제보다 코로나 중심으로 이야기가 모일 것 같다는 내부 판단이 있어서 일단 지역간담회의 일정은 올해는 하되 좀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면 원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때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4개의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창작과 보존 사이, 창작과 표현 등 담론 토론이 2개 세션이 있었고요. 나머지 2개는 사업평가 방식 개선 부분과 공정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제도화 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세션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션 논의를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차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는 다른 부분은 모두 연장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페이스북에 안전으로 올라왔던 게,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쪽에 안전으로 올라왔는데요.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무용과 관련해서 선정 작품이 올해의 신작이 아닌 작품이 올라왔다는 이의 제기가 있어서 여기에 관련해서 접수를 하고 공연창작부의 양한성 부장과 김효은 과장이 같이 배석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아니었는데 한국소설가협회의 원고료를 드리지 못한 건에 대해서 작가가 글을 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술위 내·외부 거버넌스 개선 방향 논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7기 위원회 2021년 운영방향 논의를 하는 차원의 준비 회의로 이원재 위원님이나 이희경 위원님, 홍태림 위원님, 이진희 위원님이 모여서 2회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내·외부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홍태림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으로서 말씀 나눴던 내용에 대해 공유를 드리고 함께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현장소통 소위원회 창구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직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디만, 그거에 현장소통 소위원회가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정책제안 안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무용 부분이나 한국소설가협회 불공정행위 원고료 문제는 일단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알려드려야 하는 문제는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홍태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현장소통 소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넘어갈까요?

박중관 위원장 : 현장소통 소위원회 10차, 11차 개최결과를 보고 받으셨는데요. 혹시 홍태림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으로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림 위원 : 지금 부장님께서 추가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 부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숙성을 시켜서 차후에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11차 회의결과까지 정리를 해 드려서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구두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정책 제안 페이지에 며칠 전에 새로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신나는 예술여행 선정 팀 중에 2018년도 예술위 사업에 참여를 하셨는데 예술위 사업에 참여하면서 스태프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소송이 진행 중인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이번 2021년도에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에 선정된 것을 가지고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 부

서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문의를 드리니까 사실관계 확인 후에 그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은 취소를 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다만, 해당 문제를 일으킨 예술단체의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신 예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소통 소위원회 정책제안 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정책제안은 지워달라고 올리신 분이 이야기를 하셔서 지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도 현재는 블라인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처 측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존에 수립된 기준에 맞춰서 향후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에 임금체불이 일어났던 사건은 사실 저희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 단체에서 지급을 받지 못한 스태프가 2019년도에 복지재단을 통해서 했는지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임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 단체가 2021년도에 신나는 예술여행에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지역협력부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 판결이 있다면 현재 그 문제를 해결 했는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예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불공정행위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관 위원장 : 감사합니다. 늘 역동적인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즉시 대응해서 저희 위원회의 현장소통을 강화해 주는 현장소통 소위원회 활동에 대해 위원회 멤버의 한 사람으로서 늘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소통 소위원회라는 게 아르고혁신안 23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주된 동력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늘 수고로움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제대로 보고를 받고 말씀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의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꺼번에 모두 보고를 받고 논의하게 되면 논의가 방만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접수를 받아볼까 하고요.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연이어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정창호 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월 14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회의안건은 이원재 소위원장님께서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작년에 문화예술진흥법 정비를 위한 사전연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정책혁신 소위원회에 공유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셔서 양혜원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정책연구 개선은 저희 정책혁신부에 있는 정책 연구가 2021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과 거기에 대한 자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받아서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사업부에서 2021년 예술기술융합 관련된 사업계획 논의를 정책혁신 소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후에 전략사업부 주관으로 현장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관 위원장 : 이원재 소위원장이 추가 보고를 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원재 위원 :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어제도 회의를 해서 다음에 올라올 텐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위원회 연구 활동은 3차례 회의에서 정책혁신부가 애를 많이 쓰셔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세부 사업을 짜는 것은 협력형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술기술융합사업은 엄민영 부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고 저희 소위에 제안해 주셔서 1차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가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한 외부 현장의 비판도 있어서 그것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워크숍 형태로 작년까지 참여하셨던 3인의 풀과 소위에서 추천한 3인으로 해서 회의가 잘 되었고 방향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조만간 공유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 때 대토론회 리뷰를 한번 했고 그 리뷰는 하나하나의 내용을 리뷰한 것이 아니라 정책혁신 소위원회 차원에서 대토론회 후속 정책파트 관련 후속작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성평등·성폭력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특정 TF가 있는 데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저희는 정책적 스크린을 통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설 연휴가 있어서 다음 회의 때 그 논의와 초기에 했던 논의를 포함해서 올해의 정책혁신 소위원회 활동 로드맵을 작성할 것입니다. 그 연구와 관련된 부분이나 입장표명, 정책 입장을 정리할 부분이라든가 위원회 안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트랙으로 로드맵을 짜서 워크숍을 준비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2회 한 후에 정리를 해서 위원회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차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함께 논의 후에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제9차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1월 12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강운주 위원님의 임기 만료에 따른 소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외부 위원님들께서는 작년 6월 30일에 위촉되었기 때문에 1년 임기는 6월 30일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후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진희 위원님께서 함께 논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성폭력 대응체계 TF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성평등 소위원회와 성폭력 대응체계 TF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자유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운주 위원님이나 이진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강운주 위원님은 아직도 임기 중이십니다. 그런데 임기 만료에 따른 준비까지 앞서서 해 주셔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소위원장님께서 부족한 말씀에 대해서 보태 주십시오.

강운주 위원 : 예. 혹시 이 페이퍼로 오해가 있을까 봐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화일반 후임 위원 선정이 어찌면 길어질 수도 있겠다.” 프로세스가 길어질 수도 있고 들어오신 분이 성평등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시겠다는 보장도 없고요. 어떨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면 “위원장을 누가 맡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진희 위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진희 위원님이 맡고 계신 TF의 팀장 역할을 몇 달은 계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라도 지금은 기존 외부위원 중에 1

명이 맥락을 잘 알고 계시니까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시 활동을 하시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가 나왔고 소위원회가 성희롱·성폭력 TF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와 관련된 게 핵심적으로 논의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어쨌든 하나로 묶는 것보다는 각자 존재를 하되 지금보다 훨씬 더 연계하는 방식의 논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저희로서는 “장기적으로는 성평등 소위원회가 예술위의 사무처 조직 단위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이진희 위원님께서 조금 더 강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체부의 성평등 정책과가 있는 것처럼 예술위 안에도 그런 독립적인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책혁신 소위원회와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의 활동보고를 정창호 정책혁신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요. 이원재 소위원장님과 강운주 소위원장님의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소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혹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정책혁신 소위원회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소위를 안 하는 저로서는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회의록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한 번쯤 여쭙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책 소위를 만들 때는 뭔가 집중된 정책 의제를 가지고 결과물도 내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보고를 보다 보면 위원회 조직 안에 많은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현안들을 계속해서 다루다 보면 아무래도 포커싱 된 의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그런 현안들에 매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로드맵을 짚다고 하시니까 이번에는 그것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집중된 1~2개의 사안을 가지고 토론을 깊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면 정책 소위 안에서 그런 것을 맡아서 진행하는 다른 방식을 고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원재 위원 : 이희경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소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마다 시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 베이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입장 등의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2월에 구체적으로 12월까지를 놓고 어떤 것은 1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로드맵을 짜기로 해서 이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소위의 위원님들과 역할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는 방법이나..... 말씀하신 고민 때문에 시작된 것은 맞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의 세부 결정 안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정유란 선생님과 코로나 TF를 계속 운영해서 정책혁신부와 진행하고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책혁신부가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사례도 같이 조사를 했고요. 그것을 의견서처럼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낼 것이냐?” 이런 논의를 마무리 짓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이 대통령 선거잖아요? 어쨌든 정책혁신 소위는 대통령 선거의 특정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예술위의 정책적 제안 등을 올해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재정정책 등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젠다가 되게 많은데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워크숍을 2번 정도 해서 로드맵을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고 참여하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소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일정표대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희 위원 : 성평등 소위의 운영방안과 관련된 고민인데요. 강윤주 위원님이 너무 훌륭하게 해 주셨는데요. 임기가 끝나고 나면 성평등 소위의 위원장님인 강윤주 위원님의 임기와 현재 소위 안에 계신 소위원님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성평등 소위에 대해서 고민할 때 같이 고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평등 소위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 위촉되실 분들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현재 계신 위원님들이 2월부터 5월까지의 활동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난 회의 때는 위원 중에 한 분인 홍기원 위원님이 임시위원장 형태로 맡는 것이 어떠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과정 안에서 기존의 위원장 역할을 계속해서 해 주시던 강윤주 위원장님이 위원직은 퇴임하시지만 소위의 위원이라는 형태로 컴백을 하셔서 이 기간에 대한 진행이나 마무리를 같이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차기 소위원장이 누가 되더라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윤주 위원 : 일단 다른 분들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의견도 제가 수용할만하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에 오실 분이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했던 것과 관련하여 2년간의 맥락을 따라잡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용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임기를 마친 위원이 다시 외부위원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물론 저희는 선의로 진행하는 것이지만 외부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위험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회의 때 나온 얘기였고 저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일부 동의를 했지만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 게 관례상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로 올라오신 두 분도 제 생각에는 성평등 관점으로 볼 때 계속해서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없다고 해서 소위 활동이 다른 방식으로 가거나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진희 위원님께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진희 위원님처럼 제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처럼 강윤주 위원님께서 위원 활동을 2년 이상 양질로 충분히 활동하신 분의 연륜이 드러나도록 점잖은 방식으로 정리를 하셔서 위원회를 안정화 시키는 것도 위원장으로서 너무나 고맙고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이게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진정성이 서로 합쳐지고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해야 할 범위가 명확해서, 성평

등 예술지원 소위원회는 더군다나 활동에 대한 상당한 이력도 있어서 새로운 소위원장님이 되신 홍 위원님께서 목표하신 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진희 위원님의 제의와 강윤주 위원님의 의견 모두가 위원회 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논의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임시 소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홍 위원을 그냥 하시는 것이?

박종관 위원장 :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와 상의하여 소위원장을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러면 제 임기가 만료된 후에 새로운 위원님이 오시더라도 일단은 홍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박종관 위원장 : 그렇기도 하고 그때 가서 논의를 하셔도 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위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사안을 공유하고 그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논의를 하셔도 되고요. 오늘 논의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받는 것으로 오늘 회의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사무처장이 얘기한 대로 새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 재논의를 한다는 것도 여전히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소위원회의 기존 논의를 존중하자는 것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둘러서 결정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윤주 위원 : 연이어서 여쭙보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와 이희경 위원님, 조기숙 위원님은 현실적으로 볼 때 오늘 회의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임기 이전에 간담회로 한 번 더 모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논의거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에서 나왔던 다원예술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도 있고요. 이희경 위원님이 준비하고 계신 위원 활동을 마치면서 준비한 것들을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간담회를 이 보고가 끝나고 차기 회의 일정을 정할 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윤주 위원 : 알겠습니다.

홍대림 위원 : 지금 정책혁신 소위원회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난 것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책혁신 소위에서 중요한 사안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정례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례 간담회에서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대외협력 특위에 대해 어떻게 합의해 나갈 것인지도 정리가 되어야 정책혁신 소위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여전히 정책혁신 소위와 관련된 것은 다음 간담회 때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가? 혹은 새로운 위원들이 임명되어 와서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여지는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논의를 하기가 어려우면 새로운 위원들이 임명되어 온 이후에 논의를 해도 하나의 방법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재 위원 : 정책혁신 소위원회와 그게 어떤 관계가 있나요?

박종관 위원장 : 이원재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전효관 사무처장 :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책혁신 소위와 대외협력특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 얘기입니까?

이원재 위원 : 저는 일단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오늘 안건 자체에 그 안건이..... 지금 얘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안건 제안을 하려고 했거든요. 간담회 결과에 대한 아무런 공유가 없어요. 공유가 없고 그것을 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연초에 위원회의 스탠스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연초부터 TF 위원들이 계속해서 일을 한 것이고요. 2차례의 간담회를 했고 심지어 그 다음날 긴급 간담회까지 했는데 결과도 들은 바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 내용들은 그냥 폐기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제기된 미션들은 위원회가 수행을 안 하시기로 결정하신 건지? 그 간담회에 참여했던 결정사항에 대해서 받은 바가 없거든요. 저는 결정은 따르는데 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말했던 중장기적 혹은 핵심적 전략들을 제안했는데 의견들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2번이나 간담회를 했는데 결정사항이 뭔지? 그리고 그 과제들에 대해 반대하시거나 의견을 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 저도 위원으로서 위원회 활동을 상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혁신 소위의 일이 아니라 위원회의 일이죠. 정책혁신 소위와는 제도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제가 역할을 한 것이니까요.

박종관 위원장 :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소위원회 활동 보고를 받아 주시고요. 차기 일정을 정한 후에 회의를 종료하고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잠깐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론 안건으로 준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입장문 논의를 이어가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를 받은 5건의 소위원회 활동 보고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소위원회 활동 보고를 접수 받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차기 회의 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가 11일부터 14일까지 있는데요. 18일 정도에 추가 간담회를 잡으려고 하는데 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 위원회는 관례였던 마지막 주 금요일인 26일에 2월 정기위원회를 정하려고 합니다. 일정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19일 오전 10시에 간담회 일정을 잡고 정식 위원회는 일주일 이후인 26일에 잡는 것으로 합의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합의를 해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까지 지켜봐 주신 상임감사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요원 감사 : 방금 들어보니까 7기 위원회죠? 6기 위원회부터 임기를 시작하신 위원님들 3인이 임기가 정리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으로 오실 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의 진상규명보다 진상규명에 대한 그리고 이행에 대한 그리고 결과적으로 블랙리스트로 받았던 상처들을 치유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나가야 될 새로운 동기부여, 아마 이런 것들이 7기 위원님들께 주어진 과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또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사실 잘 수습하는 과정 중에서 코로나가 준 도전은 굉장히 크고 무거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기 위원님들 앞에 정말 크고 무거운 과제들이 놓여 있었던 것을 3인의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힘으로 많은 것을 극복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2005년 1기 위원회 출범 이후에 7기 위원회로 오기까지 어떤 것들은 단절되고 어떤 것들은 왜곡되어 지고 또 어떤 것들은 팽개쳐지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짧게 인사를 하라고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더니 위원회가 현장 예술인들과 현장 예술단체의 의견들을 잘 받기 위해서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던 소위의 구조를 복원시키고 체계화 시키고 그 소위 구조를 통해서 많은 의제들을 생산해 내고 담론해 나가며 어떤 것들은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2005년도 예술위 출범 이후에 당시 예술계의 숙원이었던 중장기창작지원 사업이 없어진 것을 현 위원회에서 다시 복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논의하고 다음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던 다원예술, 1기 위원들이 다원예술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합의했던 다원예술을 다시 한번 되살려 내는 등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은 현장과 위원회 안에서 맞닥뜨린 여러 도전의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나?” 또는 “우리가 제대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살펴보셨을 때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감사 이전에 약간 빗겨서 있는 사람으로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7기 들어와서 새로운 신규사업도 여러 개 만드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예비예술가 또는 청년예술가 지원사업도 7기 위원회에서 수립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원재 위원께서 했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했던 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자.”,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오늘 세 분의 위원님들은 오늘이 정리를 하는 회의니까 감사도 할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바로 정리한 내용들만 해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답지 못한 노력과 땀과 흔적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조기숙 위원님, 강운주 위원회 그리고 이희경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기숙 위원 :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고 2월 26일까지 임명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인사말씀을 안 들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운주 위원님, 조기숙 위원님, 이희경 위원님 순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강운주 위원 : 저는 7기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술위원회에 와서 했던 일은 지극히 미미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고 당시 상황으로는 성 평등적 관점에서 예술지원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집중을 하기는 했지만 예술위원으로서 훨씬 더 스펙트럼을 넓히고 여러 영역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7기로 오신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을 보면서, 물론 저는 체력이 부족하고 머리도 부족해서 다 쫓아가지는 못했지만 “제가 안 뽑히고 조금 더 훌륭한 분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회안을 가지고 임기를 만료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위원회에 들어와서 전체 예술생태계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정말 “사무국에 계신 분들과 사무처장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사무국의 분들과는 긴밀한 연계를 맺지는 못하고 제가 소위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담당해 주셨던 이윤희 부장님 등 몇몇 분들하고만 관계를 맺었던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오신 7기 위원님들께서는 너무나 열심히 각자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술위원회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면서 마음 편하게 떠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문화일반의 후보로 올라오신 두 분도 성평등 소위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제가 예술위를 떠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7기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실 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조언을 드리고 관심의 줄을 놓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조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기숙 위원 : 엇그제 인사말을 한 것 같은데 벌써 마무리를 짓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들어왔을 때 블랙리스트 사건을 본격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었고 제가 제일 중점을 둔 것은 “제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 무용 현장에서 예술가들의 소리를 잘 읽어내고

여기에 계신 직원들의 상태와 그들의 의지를 잘 격려하면서 현장에서 원하는 것을 잘 읽어 내서 반영을 할까?” 그것에 저는 초점을 뒀습니다. 최소한 큰일은 못했습니다만, 최소한 평가, 심의의 공정성은 확보하는데 획기적인 변화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 어떤 사적인 라인이나 어떤 위원회에 사심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심의위원 풀을 구성하고요. 제가 평가 소위원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게 심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걱정을 했던 것은, 위원들이 위원회 직원의 또 다른 짐이나 일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뒤에서 서포터를 해서 일을 잘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짐이 되거나 우리를 교육시키는데 2년이 걸렸는데 또 다른 위원이 오면 직원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들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서포터를 할 것인가가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기 위원님들께서는 아주 열심히 하시고 너무 좋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지원도 안 했고요. 저도 예술가이지만 저나 제자들은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뒤에서 현장예술인으로 돌아가서 서포터를 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관 위원장 : 예, 조기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희경 위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희경 위원 : 갑작스러운 발언 요청이라서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사실 제가 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오면서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현장 밀착형 연구자이기는 하지만 연구자였기 때문에 제가 “과연 이 일을 잘 할 수가 있을까?” 스스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혼자 마지막에 합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6기 위원회였는데 “6기 위원회에 민폐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몇 달은 굉장히 공부하는 마음으로 자료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제가 음악위원으로 왔는데 음악 생태계와 예술위원회는 다른 어떤 장르에 비해서 상당히 멀어요. 멀지만 어떻게든 가깝게 만들 것인가? 동시에 사무처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께도 음악에 대한 이해나 현장에 대한 이해 플러스 음악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자 했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소위를 2개 맡는 바람에 소위 활동을 하느라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7기 위원회가 들어섰을 때 제가 소위 활동보다는 사업혁신 TF에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한 것은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모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음악계와 예술위와의 매개 역할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하고 갈 일이 그것 같아서 음악인들 설문을 만들어서 배포한 상태입니다. 아까 얼핏 보니까 100명 정도가 하신 것 같은데요. 아르코 사업을 현장의 음악가들이 너무 몰라서 저희 사업의 구조 등을 알리는 홍보 역할도 있고요. 현장 음악가들이 가장 고충이 느끼는 게 어떤 지점인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사무처에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배포한 상태입니다. 그게 2월 7일 마감이면 제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전체보고를 하라고 하셨는데 원래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요. 음

악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드리는 게 제 마지막 과제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면 저는 그냥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분간 쉬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7기 위원님들이 워낙 방향을 잘 잡고 가시기 때문에 뒤에서 응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세 분의 위원님들께 수고가 많으셨다는 의미의 박수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위임식 등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른바 사무처 직원의 입장에서 위원회 멤버를 종료하시고 위원회의 영역 내에서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인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특히 사무처장의 경우도 한정된 임기를 소화하고 가게 되고요. 임원인 저나 감사님의 경우도 한시적으로 사무처에 머물다가 가는 입장인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말씀을 “누구한테 들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노조위원장이 나주 본청에서 접촉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입장의 인사말씀을 짧게 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선욱 노조위원장 : 우선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회경 위원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항상 논리적인 판단과 따뜻한 자세의 조언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문데 직원들이 굉장히 존경했던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강윤주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예술계에서 큰 이슈였던 성평등에 관한 담론을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말 큰 초석을 놓고 가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숙 위원님은 사업평가 소위원회를 담당할 때 제가 모시고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들의 지정교부사업의 문제점이라든지 심의평가의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해서 조건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공연을 하시고 제자 양성을 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의 위원님은 “시차적으로 이렇게 좋은 분들이 오셨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존경하던 분들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제가 고별사를 18일에 하려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이제 모든 회의 절차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차기 위원회는 2월 26일 금요일에 개최하고 19일 오전에 간담회로 모이는 것으로 하고 제295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48분 회의종료)